

HYUNDAI E&C TODAY

2016 / 06 / 16
Thursday
Vol. 316

04 청정 해양 환경을 위한 '착한 기술'
"Good technology" for clean ocean environments

08 우수 사내강사 4인4색 인터뷰
Interview with four instructors

11 뜨겁게! 시원하게! 아찔하게! 여름영화 총정리
Here's best summer movies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안성호 | 발행처 홍보실 | 주소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http://news.hdec.kr



2016 현대건설 신입사원 수련대회

누벼라 세계를! 펼쳐라 열정을!



News

2016 현대건설 신입사원 수련대회가 6월 8일부터 3일간 제주 일대에서 열렸다. 푸른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신입사원 110여 명이 한데 모여 펼친 수련대회의 다양한 소식을 이번 호 <사보신문> 6, 7면에서 자세히 만나 보자.

2016 Hyundai E&C new hire training program was held on Jeju Island for three days from June 8. You can find more stories about this year's festival for about 110 newcomers held against the blue ocean on page 6 and 7.

현대건설,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 2관왕 영예

국내 건설사 최초 품질 우수 부문 대상... 우수 건설현장 부문 최우수상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건설대상에서 2관왕의 쾌거를 거뒀다.

현대건설은 최근 싱가포르 건설부(BCA: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가 주관한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 2016'에서 품질 우수 부문(QEA: Quality Excellence Award) 대상과 우수 건설현장 부문(CEA: Construction Excellence Award) 최우수상을 받았다.

품질 우수 부문(QEA)은 지난 5년간 준공한 건축물의 품질 우수성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QEA 부문 최우수상(Gold Plus)을 2년 연속(2014, 2015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대상(Platinum)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시공품질·공기준수·안전·사고율·생산성·친환경성 등을 평가해 시상하는 우수 건설현장(CEA) 부문에서 현대건설의 '스페셜리스트 센터(Orchard Gateway)' 현장이 상업·복



QEA부문 대표 수상자 싱가포르 지사 최원호 상무(아랫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와 CEA부문 대표 수상자 싱가포르 마라나 사무소 복합 현장 황현흠 부장대우(아랫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합개발 부문 최우수상(Merit)을 수상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계 건설사들의 각축장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에서 현대건설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과 품질 관리로 동아시아 최대 건설시장인 싱가포르에서 유리한 고지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은 현지에서 준공됐거나 시공 중인 프로젝트를 평가해 시공·친환경·설계·안전·품질 등 총 10개 분야로 구분해 수여하는 상이다. 현대건설은 1997년 '썬텍시티'를 시작으로 총 21회 수상(Green Mark 인증 포함 38건)하며 국내 건설사 중 최다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Hyundai E&C wins two awards from BCA in Singapore

Hyundai E&C has won two awards at the BCA Awards 2016 hosted by the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 of Singapore.

Korea's primary builder was recognized by receiving the Quality Excellence Award (QEA) and the Construction Excellence Award (CEA), the highest hono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Singapore.

The QEA is aimed at honoring developers and builders committed to delivering high-quality structures constructed for the past five years. Hyundai E&C was awarded Gold Plus in the QEA category in 2014 and 2015, which has made it the first among domestic competitors. Moreover, the builder became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by winning Platinum this year. As for CEA awarded to the projects with super high standards in construction quality, schedule management, safety accident rate, productivities and eco friendliness, Orchard Gateway, the specialist center of Hyundai E&C, was given Merit in the category of commercial and mixed use development.

The BCA Awards are given to both completed projects and those still under construction after the assessment of 10 different criteria such as construction, eco-friendliness, design, safety and quality. Hyundai E&C has so far won 21 prizes from BCA since 1997 when Suntec City was awarded at the BCA Awards, setting the record of receiving the most awards from BCA among Korean builders.



그림사 소식

현대·기아차, 유로 2016 공식 차량 전달

‘유로 2016’ 공식 후원사 현대·기아자동차가 대회 공식 차량을 지원하는 등 유럽 최대 스포츠 이벤트를 전폭적으로 후원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30일 프랑스 생드니 경기장에서 현대차 유럽법인장 김형정 전무 등 현대·기아차 관계자와 기 로맹 엡스팀 유럽축구연맹(UEFA) 마케팅본부장, 현지 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공식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 현대차는 제네시스, 신타페, 투싼, i30, 기아차는 쏘렌토, 스포티지, K5, 카렌스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승용차 및 승합차 총 875대를 지원한다. 지원 차량에는 ‘유로 2016’ 공식 로고와 현대차와 기아차 로고가 각각 결합된 대형 스티커가 부착돼 유럽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 캄보디아에서 대형 쇼핑몰 공사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3일 1억2000만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캄보디아 이온몰 2단계 신축공사’ 계약을 단독 체결했다. 이 공사는 아시아 최대 유통그룹 중 하나인 일본의 이온몰(AEON Mall)이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로 발주한 사업이다. 지상 4층 규모의 쇼핑몰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에 들어설 계획이다. 준공 후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화관, 볼링장, 소규모 상점 및 기타 유틸리티 시설 등이 조성될 전망이다. 2018년 5월 완공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그간 캄보디아에서 보여준 우수한 건축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 건축 프로젝트 추가 수주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장·부서 소식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현장, 강동구청으로부터 감사장 받아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현장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 인근의 낙후된 도로를 보수 지원해 강동구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 좁고 파손된 곳이 많은 낙후된 도로 상태로 인해 그동안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우리 회사와 삼성물산, 강동구청이 공동으로 기부금을 지원해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했고, 지난 8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선뜻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 주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글로벌마케팅본부·연구개발본부 합동대회 가져

글로벌마케팅본부와 연구개발본부가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각각 단합대회를 가졌다.

글로벌마케팅본부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장흥 일영 그린랜드에서 임직원 17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다. 임직원은 팀별로 조를 나눠 축구·족구·줄다리기·계주 등 다양한 스포츠 게임으로 우의를 다지고 저녁식사를 하며 화합을 도모했다. 글로벌마케팅기획실 관계자는 “사업본부 전원이 야외에 모여 함께 몸으로 부딪치니 소속감과 결속력이 더욱 강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연구개발본부도 지난달 20일 총 179명이 참석해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 소재 연구개발본부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본부장 특강, 족구대회, 실별 저녁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개발본부 관계자는 “일한 화합의 시간을 가진 만큼 남은 하반기도 전력투구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우리는 한배 탄 동반자”... 상생 전략을 나누다

협력사 해외현장 견학·협력사 간담회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 잇따라

우리 회사가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동반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3박5일 동안 ‘우수 협력사 해외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개 협력사 대표들은 인도네시아 상그릴라 레지던스, 싱가포르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 등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해외 건설현장을 방문, 현지 건설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건축·토목 분야의 최신 정보를 습득했다. 우수 협력사의 해외현장 견학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2010년부터 매년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장 견학에 참여한 강릉건설 김중희 대표는 “현대건설의 해외현장 책임자들과 격의 없는 대



‘우수 협력사 해외현장 견학’ 중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 현장에서 협력사 대표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은 물론, 공사 시공·품질 노하우 등을 전수받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우수 협력사를 위한 간담회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23일부터 4일간 280개 외주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H Members 공종별 간담회’가, 26일부터 3일까지는 84개 구매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H Members 구매 분과별 간담회’가 계동 본사에서 열렸다.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 우리 회사는 구매·외주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력사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상생 프로그램 운영은 협력사의 공사 수행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 성과가 다시 현대건설의 글로벌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윈윈 구조”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의 모범을 제시하고 보다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ur company sets out to share win-win strategies

Our company is accelerating the effort to obtain win-win growth by offering a variety of programs to our subcontractors.

Our company provided a five-day field trip to overseas construction sites designed for outstanding subcontractors of Hyundai E&C

between May 24 and 28. CEOs of 20 subcontractors visited construction sites abroad including Shangri-La Residence in Indonesia and Marina South Mixed Development in Singapore to identify recent trends in the construction markets and gather the latest information on architec-

ture and civil engineering. Since 2010 when our company began to offer the yearly field trip program, we have fully funded our subcontractors to visit overseas construction sites.

In addition, conferences for our subcontractors were well received. H Members Conference for Disci-

plines was held in the annex to the main building in Gye-dong, Seoul. CEOs of 280 subcontractors attended the four-day meeting held on May 23. H Members Conference for Procurement Departments was held for 84 suppliers between May 26 and June 3.

‘2016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 ‘제20회 서울특별시 환경상’ 수상

우리 회사의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탁월한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힐스테이트 동탄’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민간부문 대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은 국내 주거 관련 CS(Customer Satisfaction)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 10회째를 맞는다.

‘힐스테이트 동탄’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 단지 내 다양한 시설을 스마트폰·인터넷 등으로 조정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적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열린 ‘2016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 시상식(왼쪽), 마곡 힐스테이트 중앙 잔디마당.

한편 ‘마곡 힐스테이트’는 지난 2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진행된 ‘제20회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에서 ‘조경생태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서울시가 주관한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기업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확산시키고자 1997년 제정됐다.

‘마곡 힐스테이트’는 ‘인근마을’이란 어원을 가진 지역의 역사성을 긴능선과 조형물을 통해 재현한 중앙 잔디마당으로 꾸몄고, 창의적인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놀이터를 조성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다.

창덕궁에 굴착기 기증

우리 회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창덕궁 문화문 금천교에서 굴착기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창덕궁 굴착기 기증식’에는 우리 회사 총무실장 정희찬 상무, 문화재청 김대현 국장 등이 참석했다. 기증된 굴착기는 창덕궁의 환경정화 및 시설보수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2005년에 문화재청과 ‘문화재 1지킴이’ 협약을 맺고, 임직원들이 창덕궁을 방문해 청소, 관리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창덕궁 지킴이’ 활동을 7년째 시행해 오고 있다.



14일 열린 창덕궁 굴착기 기증식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수주

우리 회사가 최근 약 500억원 규모의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공사를 수주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14번지 일대에 지어질 이 현장은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288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다.

우리 회사는 2014년에 준공한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를 시작으로 문정6구역·문정7구역 지식산업센터의 시공 노하우를 인정받아 이번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29개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김해올하 2지구 원메이저’ 6월 말 분양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6월 말 경남 김해시 올하2지구 B2·S1·S2블록에서 ‘김해올하2지구 원메이저’를 분양한다.

김해 올하2지구 원메이저는 지하 2층~지상 25층, 27개 동, 총 2391세대로 구성됐다.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구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은 물론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실별 온도 제어시스템을 제공해 에너지 절감도 가능하다.

단지 위쪽으로는 경남의 관광·물류산업의 중심인 김해관광유통단지 1·2지구와 생활 인프라 또한 풍부하다. 김해 올하2지구는 총 8853가구, 약 2만2000여 명의 배후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6월 말 김해 올하2지구 택지지구 내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8년 12월 예정.

분양문의 1800-3290



‘김해올하2지구 원메이저’ 조감도

Take me out to the ball game, and to dinner

June 04

Baseball season is in full swing, and to help fans enjoy the games even more this year, stadiums across Korea have diversified their food offerings.

Grilled steak and pork belly, Chinese-style sweet-and-sour pork and even jjajangmyeon, or noodles with black bean sauce, are all available to fans these days.

"Who ordered jjajangmyeon?" a delivery person shouted at the Gocheok Sky Dome in Guro District, southwestern Seoul, causing seated fans to burst into laughter. Until recently, jjajangmyeon, usually found at Korean-style Chinese restaurants, was not available for baseball fans, due to the difficulty getting delivery at the stadium.

But now, the situation has changed. Ever since a Chinese restaurant opened up inside the venue, one more option has been added for hungry fans.

Back in the 1980s, there was not much to eat at baseball stadiums. The only things available were dried squid and gimhap (rice rolls) bought from sellers who walked around in the stands. Some sellers even snuck in bottles of soju to sell secretly.



Fans eat jjajangmyeon, noodles in black bean sauce, at the Gocheok Sky Dome in Guro District, southwestern Seoul.

Food choices started to become more diverse in the late 1990s, with the growing popularity of chicken and beer. Then one day in 1998, at a stadium in Changwon, South Gyeongsang, a baseball fan brought in a portable stove and cooked pork belly.

Ever since, fans have been demanding more food options, and now many stadiums have set up barbecue zones for those who want to grill up some food before or after the game.

Since 2010, popular food chains have started to open up branches in stadiums all over the country. Sweet-and-sour chicken pops from Incheon, flat

dumplings from Daegu and eel from Busan all found their way into the cities' stadiums.

These days at baseball stadiums, most fans can be seen drinking beer. This is not because all baseball fans are also beer fans, but because it is illegal to sell alcoholic drinks stronger than 5 percent inside the stadiums. For safety reasons, alcoholic beverages must also be served in cups, not in cans or bottles. At Jamsil Baseball Stadium in southern Seoul, beer boys wearing kegs on their backs walk around selling cups of beer, while beer girls make the rounds at Daegu Sam-

sung Lions Park.

Since Korea's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started in 1982, the accumulated number of attendees has surpassed 125.7 million, proving baseball to be one of the most popular leisure activities in the country. Fans usually say there are three main factors when it comes to enjoying a baseball game: the first is watching the game, the second is cheering for the teams and the third is eating food.

"It's possible to not watch baseball while you eat, but it's definitely impossible to not eat while you watch a game," said 51-year-old fan Kim Mun-guk.

By KOREA JOONGANG DAILY

맛있는 야구장으로 가자

야구 시즌이 한창이다. 올해 전국 야구장은 팬들이 경기를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요즘 야구팬들은 스테이크, 삼겹살, 탕수육, 짜장면까지 야구장에서 먹을 수 있다.

"짜장면 시키신 분?" 서울 '고척스카이돔구장'에서 들려온 짜장면 배달원의 외침에 관중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최근까지만 해도 한국 스타일의 중국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짜장면을 야구장에서는 먹을 수 없었다. 짜장면을 구장 내로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고척스카이돔구장 안에 중국집이 입점하

면서 배고픈 야구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 더 늘었다.

80년대는 야구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다. 음식이라고 해 봐야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파는 마른 오징어와 김밥이 전부였다. 일부 판매원들은 소주를 몰래 숨겨놓고 팔기도 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야구장 먹거리가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바로 '치맥' 열풍 덕분이다. 1998년 창원구장에서 한 관중이 휴대용 버너를 가지고 와 삼겹살을 구워먹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그 이후 야구팬들은 더 많은 먹거리를 원했고, 많은 구장에서 게임 전후 석쇠구이 요리를 원하는 팬들을 위해 바비큐 존을 설치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유명 음식체인점이 전국 야구장 안에 지점을 열기 시작했다. 인천 닭강정, 대구 납작만두, 부산 곱장어는 각 지방 구장의 별미로 자리잡았다. 요즘 야구장에서는 관중 대부분이 맥주를 마실 수 있다. 모든 야구팬이 맥주 팬이어서가 아니라 야구장에서 알코올 5도 이상의 술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전상의 이유로 캔이나 병이 아닌 컵에 담긴 술만 마실 수 있다. 잠실구장에서는 등에 작은 통을 맨 '맥주보이'가 돌아다니며 컵에 담긴 맥주를 팔고,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는 '비어걸'이 관중석을 돌아다닌다.

한국 프로야구 리그가 1982년 출범

한 이후 누적 관중수는 1억2570만명을 훌쩍 넘었으며, 야구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민 레저 중 하나임을 증명해 준다. 야구팬들은 야구 경기에 세 가지 재미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야구 경기를 보는 재미, 응원하는 재미, 그리고 먹는 재미다.

야구 팬 김문국(51)씨는 "먹을 때 야구를 안 볼 수는 있어도 야구를 볼 때 안 먹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Key expressions

diversify 다각화하다
keg 작은 통
accumulate 모으다, 축적하다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Q Please describe this picture.

I am glad to describe this picture. There is a sky-blue beach in this picture. The sand in front of beach is white and looks soft. I can see white clouds between sky and water. Two chairs and one parasol are at left side of the beach. Those are also white. I think this picture is like a wonderland for summer people. I want to spend my vacation at the beach like this. It looks peaceful and clean. That's all I can see in this picture. Thank you.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2 decades later, 'Independence Day' returns

June 03

In 1996, German filmmaker Roland Emmerich set the bar high for disaster films with his sci-fi flick "Independence Day."

The blockbuster grossed \$8 million internationally, becoming the most successful film of the year.

Exactly 20 years later, having polished his skills with more disaster films like "The Day After Tomorrow" (2004) and "2012" (2009), Emmerich returns with a second installment of the alien movie, "Independence Day: Resurgence," armed with cutting-edge CGI effects and a new generation of actors. It's also his first 3-D movie.

"Over the last 20 years, the technological side of films has changed enormously," the director said during an online press conference Monday. "I always think as a director that you have to appreciate all that technology."

Emmerich said that he worked with more than 15 visual effects studios to formulate the scenes.



By KOREA JOONGANG DAILY



외국인 직원 Talk/Talk

Think positive to achieve my goals and to face the difficulties



Bernie Munoz Capulong
(Civil Field Senior Engineer,
Kuwait Sheikh Causeway
Project)

Q Could you briefly tell us about yourself?

I started my career in Hyundai E&C for Ring Road Project, Kuwait, on February 1993. Since that, I have worked for Hyundai E&C for more than 23 years. After working as Civil Engineer, I participated in a wide range of projects such as reclamation works, oil refinery, power plants,

gas plants, aluminum refinery and the construction of this causeway. Luckily I was selected for the global talent program of Hyundai E&C.

Q You came to Korea to attend the global talent program. What was the most impressive thing during that period?

On the way from the airport to the hotel in Korea, I and my colleagues were pleased with the hospitality of Hyundai staff and it lasted until our last day in Korea. During staying in Korea and attending the seminar, I was impressed

about the huge improvements in technology and management system which enable Hyundai E&C to compete with and surpass any other international companies.

Q Whenever you feel stress because of the heavy workload, how do you manage it?

First I just try to calm myself, which is my personality, and make plans about the activities which I intend to do, such as proper work sequence, work schedule and safety procedure. I want to meet the target date to finish the activities

without man hour loss. That's because the more you stress out about yourself, the more you cannot finish the work on time. I always think positive to inspire myself to achieve my goals and face difficulties.

Q Finally, please give a word about Hyundai E&C newspaper.

It's very rare that a company has its own newspaper. This is good news for me. First, there will be proper information on Hyundai E&C and it will communicate to all parts of the world. Second, Hyundai E&C shows that there is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which means you can give your own opinions. Lastly Hyundai E&C newspaper will be a good advertisement to our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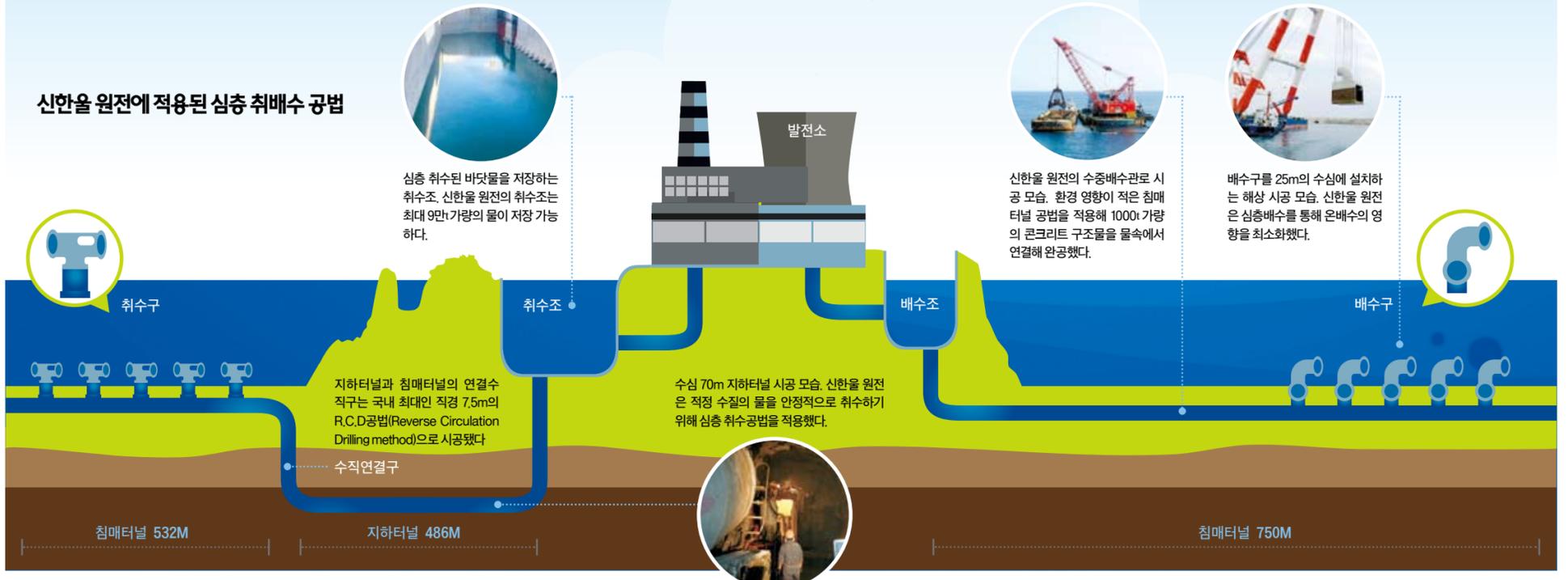
Bernie and his family

R&D 혁신 스토리 청정 해양 환경을 위한 '착한 기술'

⑦ 온배수 영향 저감을 위한 심층 취배수 시설 서울 하늘을 뒤덮은 부연 미세먼지부터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등장한 플로리다 해변의 상어까지 지구촌 곳곳이 자연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말처럼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의 대규모 플랜트 현장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배려의 기술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글=이영주

심층 취배수는 터널이나 파이프를 통해 해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방류하는 것을 지칭한다. 수중 파이프 매설이나 터널링은 고도의 설계와 설치 기술을 요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바다는 육상에 비해 작업공간이나 환경의 제약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안전한 취배수 시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설계 및 설치 경험을 필요로 한다. 우리 회사는 적정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취수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배수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한울 원전에 적용된 심층 취배수 공법



발전소 옆 아쿠아리움부터 애플망고 농장까지

대형 발전소나 석유화학단지들은 왜 해변에 위치해 있을까?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이라 해도 대형 산업시설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해안을 따라 도열한 모습은 신기하다. 석유화학플랜트, 발전플랜트, 철강플랜트 등은 기계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대량의 물을 순환시키는 펌프나 배관장치를 갖추고 있다. 흔히들 냉각수라 부르는 이 물을 얻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것은 바닷물. 그때문에 대형 공장이나 발전소의 입지 선정에는 취배수 시설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자력발전소는 100m³/s(1초당 100톤)가량의 냉각수를 필요로 한다. 한 사람이 0.2t의 목욕물을 사용한다고 계산해도 50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대량의 물이 조당 바다에서 끌어올려져 다시 바다로 방류되는 셈이다. 해수를 직접 통과시켜 냉각하는 Once-through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배수시점이다. 국내 원전은 원자로에서 직접 가열되는 물과 터빈을 가동하는 증기가 분리된 가압경수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물이 직접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오염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데 바닷물의 온도가 문제다. 증기를 냉각시키다 보니 일반 해수보다 7도나 높은 온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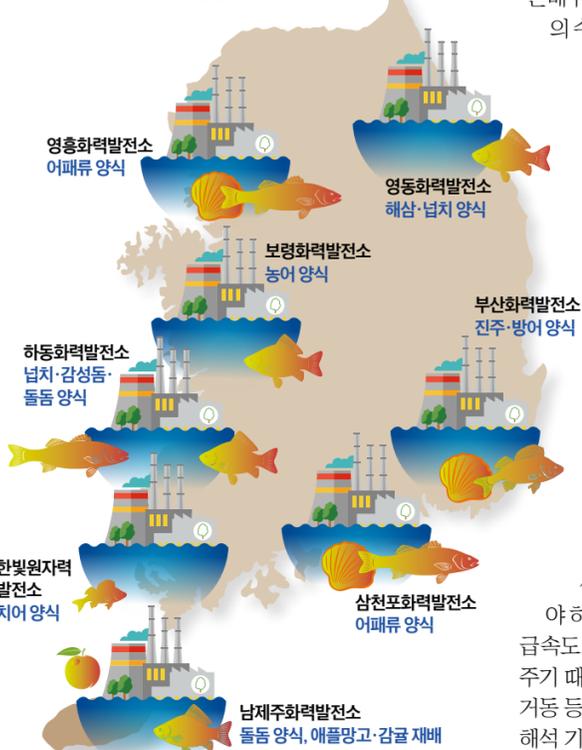
어민에게 바닷물의 온도는 민감한 사안이다. 선진국에서는 인근 어민들을 위해 일찍부터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시설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적당히 상승한 수온은 물고기의 성장이나 산란 시기 조절에 유용하기 때문에 양식에 활용되기도 하며, 열대식물 재배에 사용되기도 한다. 국내 역시 부산화력발전소의 진주 양식, 남제주

화력발전소의 망고와 감귤농장, 한빛 원전의 아쿠아리움 등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다양한 우수 사례를 찾을 수 있다.(그림1)

바다 밑을 공략하고 바다의 흐름을 읽는다

온배수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취배수 시설은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찬 공기를 활용한 Air Cooling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비용이나 규모의 문제로 한계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온배수열 활용 현황



우리 회사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같은 대형 현장에 심층 취배수공법을 적용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심층 취배수 공법(메인 이미지)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깊은 곳에서 취수와 배수를 하는 것이다. 신한울 원전의 취수구는 해안에서 1km 이상 떨어진 수심 20m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배수구 역시 지형변화나 환경파괴가 비교적 적은 침매터널(Immersed Tunnel, 육상에서 제작한 구조물을 가라앉혀 물속에서 연결시켜 터널을 만드는 토목공법)로 시공했다. 이처럼 해저심층에서 터널을 활용해 취배수를 하게되면 수온이 낮은 깨끗한 수질의 물을 얻을 수 있어 냉각 효율이 높아지고, 원전과 인접한 해안선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또한 온배수 시 회석효과를 높여 인근 해안의 수온 변화까지 최소화한다.

하지만 연구개발본부 해양에너지연구팀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 종류의 플랜트 시설을 건설하는 우리 회사의 시공여건상 각기 다른 환경과 설비, 지형 여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가 지난해 쿠웨이트에서 수주한 알주르 정유 공장만 보더라도 액화가스 기화를 위한 용수를 해안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온배수가 아닌 냉배수가 배출된다. 열대 해양에 차가운 물이 배수되며 생기는 반대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셈이다. 바다로 배수된 물은 급속도로 퍼져나가 먼 곳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수의 유동과 배출수의 거동 등 수리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해석 기술을 갖춰야 한다. 또한 배수된

물이 다시 취수구로 유입되는 재순환(Recirculation)을 막는 수리 설비, 희석 효과를 높이는 배수구 설계 등도 주요 기술 중 하나다.

이를 위해 해양에너지연구팀은 ▶근역/원역 확산 모델링을 통한 확산 범위 예측 ▶재순환을 고려한 위치 선정 ▶효율성을 고려한 수리구조물 설계 등 발전소 및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관련 취배수 시스템 고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체의 3차원적 거동과 방류수 확산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3차원 수치 해석 프로그램), 해수 유동해석 소프트웨어 등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고비용의 수리모형실험이나 실제 해양조사를 대신해 입찰단계부터 효율적인 물량 산출과 사전설계 검증이 가능하다.

비용 절감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다

2014년 1분기 국내 건설사의 공종별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 정유공장 및 발전소 등 플랜트 공사가 162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 플랜트 공사가 증가하면서 취배수 설비 역시 고도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다. 해양에너지연구팀은 우리 회사가 입찰 예정이거나 시공 중인 10여 개국 20여 개 프로젝트의 온배수 확산 시뮬레이션과 취배수 기술 컨설팅을 통해 설계와 시공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주변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이는 우리 회사의 플랜트 분야 시공능력 강화는 물론 향후 준설·매립·교량 등 해안 관련 개발사업에 활용이 가능한 기술로도 각광받을 전망이다.

MINI Interview

이명은 과장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해양에너지연구팀



해양에너지연구팀의 연구 실적을 소개해 주세요.

해양에너지연구팀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해양 신재생에너지 및 여타 해양개발사업의 당사 도입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취배수 시설은 2014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해 인프라·전력·플랜트 사업본부 등 다방면에 걸친 수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싱가포르 난양공대와의 공동연구를 시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 경쟁력인 해양 분야 첨단 정보 및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규제가 까다로워지는 해양공사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해안 시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환경규제를 걸림돌로 생각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해양'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인간의 삶을 대표하는 키워드이며, 에너지 자원의 주요 보고입니다. 각국은 다투어 해양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 위성기술과 관측 장비의 발달로 인해 눈부신 속도로 정보 축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양에너지연구팀은 이러한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접근 가능한 해양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석적 툴과 물리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향후 당사의 해양 항만 프로젝트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보다 질 높은 환경친화적 해양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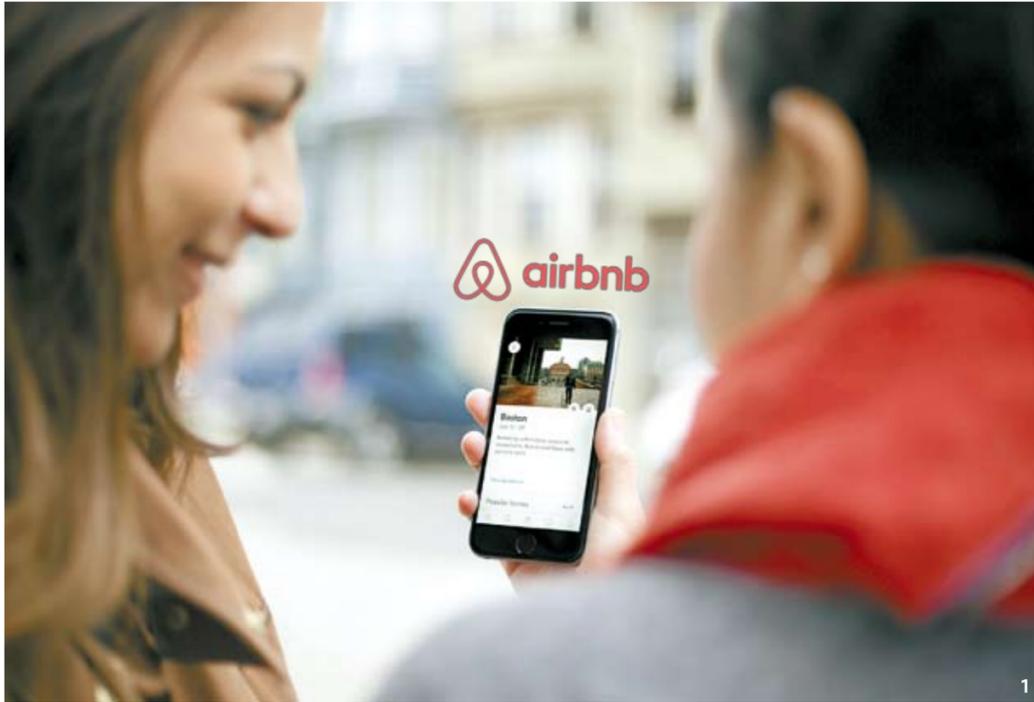


해외기업경영 트렌드 ⑦ 에어비앤비(airbnb)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 낳은 ‘데카콘(Decacorn)’, 에어비앤비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

(세계 최대 숙박공유 기업)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로 꼽히는 에어비앤비가 창업한 지 8년 만에 호텔 체인 1~3위(힐튼·메리엇·하얏트)와 순위를 다투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현재 추정 가치는 255억달러(약 29조원)로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을 넘어 ‘데카콘’(100억 달러 이상) 기업으로도 불린다.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세계 최대 숙박 공유업체로 컸을까. 글=전효진 <조선비즈> 기자 / 사진=에어비앤비 제공

혁신1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

에어비앤비는 공동창업자인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와 조 게비아(Joe Gebbia), 네이션 블레차르치크(Nathan Blecharczyk)가 2008년 설립한 숙박 공유업체다. 집의 빈 방을 내놓는 호스트(Host)와 현지인이 사는 집에 묵으려는 게스트(Guest)를 연결시켜주는 IT 플랫폼 업체이기도 하다.

에어비앤비의 혁신은 ‘생존’을 위한 작은 시도에서 비롯됐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온 공동창업자들은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고민했다. 그러던 중 집 안의 한쪽 구석을 낚신 사람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공동창업자들은 누군가는 돈을 지불하면서 현지 사람들과 아침밥을 함께 만들어 먹고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아이디어가 나온 즉시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 직접 홍보사이

트를 만들고, 지인들에게 안내 메일을 보냈다. 첫 시도로 공동창업자들은 3명의 숙박객을 모집해 순식간에 1000달러를 벌었다. ‘간이 침대(AirBed)와 아침식사(Breakfast)’라는 의미의 이름이 붙은 에어비앤비(Airbnb)의 시작은 순탄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은 블로거에게 메일을 보내고 이들이 입소문 내기를 기대했지만 지속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여행객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에어비앤비는 누적 사용자 100명을 모으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에어비앤비가 창업했을 당시에는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시기였다. 눈에 띄는 실적이 없었으니 투자금을 모으기도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에어비앤비의 공동창업자 3명 중 2명이 산업디자인을 전공했다는 것도 투자자들에게는 신뢰감을 주기 어려운 요인이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비전을 믿지

않았고, 창업자들은 투자금을 얻기도 어려웠다.

위기상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터졌지만, 공동창업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생존하기 위해 색다른 시도를 했다. ‘무엇이라도 해 보자’는 마음으로 숙박객에게 아침밥으로 제공하려 했던 시리얼의 박스를 직접 디자인한 포장지로 바꿔 붙인 것이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귀엽게 그려진 포장지와 함께 어울리는 짧은 노래를 만들어 홍보하고 팔았다. 시리얼을 팔아 번 돈은 많진 않았지만, 이 덕분에 에어비앤비는 CNN 방송에 나오게 됐다. 생존을 위한 작은 시도 덕분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투자자들은 “에어비앤비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창업자들의 이 같은 생존력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 시작했다. 공동창업자들은 투자 받은 자금으로 즉시 세계 곳곳의 에어비앤비 호스트와 게스트를 직접

1 에어비앤비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의 독특한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다. 2,3 호스트 가정의 거실과 똑같이 생긴 사무실, 호스트 가정의 캠핑카를 닮은 회의실에서 에어비앤비 직원들은 업무를 보고 회의를 한다. 개인 칸막이가 없이 탁트여 있고 통유리를 설치해 소통 효율성을 높였다. 4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본사 전경.

만나러 다녔다. 이글루, 원두막, 보트, 워터빌라, 성 등 에어비앤비를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는 독특한 방을 직접 모집했고, 건의사항은 즉각 반영시켰다. 그 결과 현재 에어비앤비의 누적 이용자는 8000만 명이 넘게 됐다. 공동창업자들의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이 아니었다면 현재의 에어비앤비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혁신2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 만든 창조적 기업문화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중 브라이언 체스키 CEO(최고경영자)와 조 게비아 CPO(최고제품책임자)는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RISD)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후에 세 번째 창업멤버인 엔지니어 출신의 네이션 블레차르치크 최고 기술책임자(CTO)를 영입했지만 공동창업자 3명 중 2명이 디자인을 전공했다는 이들의 배경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에어비앤비는 투자자들의 따가운 시선과 공유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의 의구심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공동창업자들은 그러나 약점으로 평가됐던 부분을 오히려 강점으로 내세웠다. 디자인 감성을 활용해 회사를 이끌어 간 것. 체스키 CEO는 회사 내부에서 숫자로 매출 목표치를 적는 대신 에어비앤비를 사용한 호스트와 게스트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 회사 곳곳에 붙였다. 직원들은 에어비앤비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움직이는지를 차가운 이성이 작용하는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감성이 먼저 반응하는 마음으로 느꼈다. 스스로가 가장 잘하는 방식인 디자인으로 자신들의 비전을 끊임없이 재확인했다. 디자인 감수성은 다른 곳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창업 초반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숙소 내부 사진들은 화질이나 구성이 엉망이었다.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 디자인을 전공한 두 명의 공동창업자들은 보다 못해 직접 호스트의 집을 방문해 사진을 멋있게 찍었고, 엔지니어 출신의 또 다른 공동창업자는 웹사이트에 깔끔하게 보이도록 구성해 올렸다. 작은 차이였지만 효과는 컸다. 사업 초창기 1년 동안 사용자 100명을 모으기 쉽지 않았던 에어비앤비는 현재 세계 190여 개 국가의 3만 4000개 도시에서 2초당 한 건씩의 숙박 예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기업문화는 예술과 기술의 조화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에어비앤비 체스키 CEO는 “기업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창업자의 배경과 사업 제품 자체가 내는 에너지가 기업문화를 만든다”며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협업하고 창조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에어비앤비의 혁신을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예술과 기술의 결합(Marriage of art and technology)’은 에어비앤비의 성장동력인 셈이다.

에어비앤비의 기업문화는 예술과 기술의 조화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특히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조건으로 일할 때 개인의 사람들이 느끼는 열정을 잘 활용해 성공적으로 기업을 키웠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상장(IPO)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공동창업자들은 오히려 에어비앤비를 시작했던 초창기 모습을 떠올려 현재 에어비앤비의 호스트와 직원들을 위한 회사로 키우고 싶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에어비앤비 체스키 CEO는 “가지고 있는 물건뿐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사람들 스스로가 더욱 효율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다”며 “누군가의 가슴 속에 의미있는 경험을 창조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쪽의 소마(SOMA) 지역 에어비앤비 본사 건물 안에 들어가면 영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세계 곳곳의 가정집을 그대로 본뜬 사무실이 눈에 들어온다. 실제로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할 수 있는 숙소 모습과 같다. 직원은 정해진 자리 없이 매일 세계를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싶은 장소를 고른다. 일부 직원들은 에어비앤비에서 실제로 예약할 수 있는 숙소와 같은 모습의 오토캠핑카에 들어가 회의 준비를 하기도 했다. 회사 동료 한쪽 벽에는 큼지막하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대할까? 그 해답이 우리 회사가 추구해야 할 가치다.” ‘소유’보다는 ‘공유’ 개념이 자리 잡은 에어비앤비 사옥에서 직원들은 매일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에어비앤비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느꼈다. 그 덕분에 직원들은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한다.

에어비앤비는 본사 직원을 뽑을 때 간접적으로 ‘호스트(Host)’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본다. 채용 과정에서 “묘비명은 무엇으로 하고 싶은가” “직접 한 선물 중 가장 인상 깊은 물건은 무엇인가” 등 간단하지만 평소의 생활 태도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주인 의식이 있는 직원인지를 평가한다. 에어비앤비는 기업의 철학에 마음으로 공감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뽑아 회사를 키웠고, 그 결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최근 미국 포브스지(誌)는 에어비앤비를 100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 중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1위로 뽑았다. 컨설팅업체 베인&컴퍼니(2위), 페이스북(5위), 구글(8위), 애플(25위)에 다니는 직원들보다 에어비앤비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에어비앤비 체스키 CEO는 “가지고 있는 물건뿐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사람들 스스로가 더욱 효율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다”며 “누군가의 가슴 속에 의미있는 경험을 창조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숫자로 보는 에어비앤비



왼쪽부터 공동창업자 조 게비아, 네이션 블레차르치크, 브라이언 체스키.





현대건설의 신입사원 수련대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1980년대는 강원도, 90년대는 주로 현대사산농장에서 열렸다. 장소는 변했지만 신입사원과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여서 로 의미 있는 추억을 나누고 선우배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만큼은 지금과 다르지 않다.

2016 신입사원 수련대회

제주에서 펼쳐진 청춘열전, 열정을 동력으로 미래를 품어라!

와합과 열정의 축제 '2016 현대건설 신입사원 수련대회'가 지난 8일부터 2박3일간 제주도 일대에서 열렸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109명의 신입사원들이 쏟아낸 함성과 패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끈끈한 동료애,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현장에 <사보신문>이 함께했다. 글=김민화 / 사진=이슬기

진화한수련대회, 판을 바꿨다

지난 8일 오전 9시30분 김녕해수욕장. 현대건설-현대종합설계 신입사원들이 여장을 풀고 각자 큰 포대자루와 짐계를 손에 쥐었다. 입소식 전, 제주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CSR은 신입사원 수련대회 프로그램으로 처음 치러진 만큼 신입사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적극 임했다.

올해 현대건설 신입사원 수련대회 풍경이 달라졌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신입사원으로서 갖춰야 할 건강한 인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협동심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졌다.

입소식에 이은 프로그램은 '열정 올림피아드'. 과거 육상경기 위주로 치러졌던 것과 달리 올해는

'육·해상 8종 경기'로 다양하게 구성돼 열리며 신입사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팀별로 볼풀공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게임인 ▶열정을 채워라를 시작으로 ▶신발던지기 ▶비전퍼즐 ▶포인트 플러스 등이 진행됐다. 육상경기가 끝나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흑돼지 바비큐 등 고단백 음식으로 에너지를 양껏 보충했다. 뒤이어 열린 스티븐점 수중전 게임. 출발선에서 40m 거리를 뛰어 물속에 있는 깃대를 잡는 ▶깃발을 잡아라부터 ▶미니보트 레이 ▶점검다리 건너기 등 신입사원들은 천혜의 워터월드에서 신나는 한판 점전을 벌였다.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린 건 씨름대회였다. 경기는 4개 팀에서 선발된 남녀 각 1명이 참가해 토너먼트 식으로 진행됐다. 우승을 놓고 격돌할 두 선수가

호명되자 모래판을 에워싼 동료들 간의 열변 응원이 펼쳐졌다. 무패 행진을 이어간 김성욱(현대건설 인프라환경건축기전실)·김지선(현대종합설계 디자인실) 사원이 올해 '씨름왕' 남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비가와도 오라차차 전진!

수련대회 둘째 날 일정은 '한라산 미션 등반'이었다. 어리목에서 출발해 해발 1700m의 윗세오름을 지나 영실까지 총 8.4km에 이르는 코스다. 신입사원들은 안전한 등반을 위해 전문교관의 지도에 따라 빗속에도 발걸음을 옮겼다.

초반 올라가는 길은 멀고도 팍팍했지만 팀별로 주어진 난센스·상식 퀴즈를 풀며 고된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 벅찬 숨을 달래며 열심히 오르니 윗세오름에서 비경을 만났다. 하늘을 받치는 골재의 기상, 6월 초 만개한 철쭉군락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이날 일정보에 적힌 하산 시간은 오후 2시반이었지만 신입사원 전원이 1시간여 일찍 도착지에 집결하면서 완주 기록을 앞당겼다. 신입사원들은 테이블에 마련된 수박과 하산주로 피로를 달랬다.

저녁에는 신입사원 수련대회 간판 행사인 '현대인의 밤'이 열렸다. 이날 만찬에는 신입사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수현 사장과 각 부부 임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정수현 사장은 각 테이블을 돌며 신입사원들과 일일인사를 나눴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기념촬영을 하며 여담을 이어갔다.

만찬에 이어 수련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비전 퍼포먼스'의 막이 올랐다. '현대건설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한 신입사원 단체 뮤지컬이 오프닝을 장식한 가운데 미디어 퍼포먼스, 힙합, 댄스 메들리, 합창 드로잉쇼 총 4개 팀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다. 영예의 대상은 그루브 넘치는 랩과 비트박스,

디제잉 등 힙합 무대를 선보인 2팀에게 돌아갔다. 우승팀은 상금 80만원과 함께 임원진과 동료들로부터 뜨거운 축하를 받았다.

'현대인의 밤'의 대미를 장식한 무대는 신입사원과 임원진들이 함께 열창한 '젊은 세대'였다. 고요할 것만 같았던 제주의 푸른 밤은 화려한 축제의 장으로 빛났다.

젊음·용기·도전=신입사원의 특권

수련대회 마지막 날. 오전 한 시간 남짓 이어진 정수현 사장의 특강은 신입사원이라면 누구나 가졌을 만한 고민들을 주제로 펼쳐졌다. 정수현 사장은 "젊음과 용기, 도전이 가득한 생활은 신입사원만의 특권이다. 자신감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40년간 근무하면서 사장이 되겠다고 목표를 잡은 적은 없지만,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선 늘 고민해 왔다"며 신입사원들에게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당부했다.

2박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퇴소식과 함께 수련대회 우승팀이 발표됐다. 첫날 '열정 올림피아드'와 '응원전'에서 선두를 놓쳤지만 '한라산 등반 미션'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1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오후에는 중문과 성산 일대에서 각각 요트체험과 낚시투어를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함께 웃고 하나의 꿈을 쫓아온 109명의 신입사원들. 이번 수련대회는 신입사원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단계 뛰어오르는 꿈의 도약대가 되었을 것이다. 이날 열정과 패기를 떠올리며 회사의 미래이자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주목이사람! 2016 신입사원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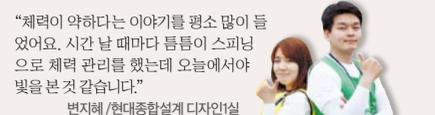
천하장사 만만세~ 남녀 씨름왕



"태어나서 씨름 경기를 처음 해봤는데요. 옆자리부터 상대편의 힘에 밀릴 때도 있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우승까지 하게 됐습니다. 참 신선하기도 하고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김지선 / 현대종합설계 디자인실

"현대건설 신입사원 수련대회 행사 중 대표 경기 종목인 씨름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곳에서 쏟았던 열정만큼 일도 열심히 해서 현장에서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원이 되고 싶어요!" 김성욱 / 인프라환경건축기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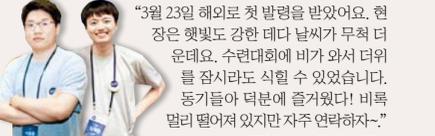
육상경기 '포인트 플러스' 우승자



"체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평소 많이 들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스피닝으로 체력 관리를 했는데 오늘에서야 빛을 본 것 같습니다." 변지혜 / 현대종합설계 디자인실

"제가 소속된 도시정비수주전담 TFT는 빠르게 돌아가는 업무만큼 민첩성뿐 아니라 강한 승부욕 등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평소 업무를 통해 익힌 순발력 덕분에 이번 게임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팀장님-선배님- 저 1등 했어요!" 정연아 / 도시정비사업실

중등에서 10시간 날아온 동료



"3월 23일 해외로 첫 발령을 받았어요. 한 점은 햇빛도 강한 데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수련대회에 비가 와서 더위를 잠시라도 식힐 수 있었습니디. 동기들이 덕분에 즐거웠니!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주 연락하자~" 서종환 / UAE 원전건설공사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비전 퍼포먼스나 팀워크를 요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디!" 김재환 / UAE 원전건설공사

비전 퍼포먼스 우승의 주역들



"사실 저희 팀에서 비전 퍼포먼스 1등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큰 소리로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고, 즐겁게 연습한 결과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아요. 공연할 때 큰 호응을 보내준 사장님과 부부장님, 모든 동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팀 조장 김갑준 / 도시정비사업실

Challenge



Festival for Hyundai E&C rookies on Jeju Island



Newcomers are clapping each other's hands for warming up.

2016 Hyundai E&C new hire training program full of passion and harmony was held on Jeju Island for three days from June 8

Evolving training program for newcomers

This year's new hire training program of Hyundai E&C went through a transformation. It was equipped with new programs such as the CSR activity designed to help our newcomers build a healthy personality,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history of our new hire training programs, and a wider range of diversified programs to develop the spirit of team work.

After the opening ceremony, "Passion Olympiad" followed. This year, it offered eight different kinds of games on sea as well as on land which were well received by the participants.

The atmosphere of Passion Olympiad reached its peak with Korean wrestling competition. When two players who would vie with each other

for victory were called, the audience yelled out a cheer.

Let's step forward together even in the rain

The next day opened with trekking on Mt. Halla. The participants started the 8.7-kilometer trail course at Eorimok, passed by Witse Oreum and moved toward Yeongsil. As soon as it dawned, the organizers became very busy preparing for the mountain trekking because they heard that there would be rain from early

in the morning. All the participants began to climb the shield volcano on Jeju Island, following the directions of the instructors to make the climbing safer.

"Hyundai E&C Night," a climax of the new hire training program, was held in the evening. To encourage passion and enthusiasm of the newcomers, CEO Jung Soo-hyun and executives of business divisions participated in the festival.

In "Vision Performance" followed by the dinner party, four teams

showed eye-catching performances such as a media performance, a hip hop performance, a medley of dances and a drawing show.

Be young and courageous. And do it anyway!

In the special speech by CEO Jung Soo-hyun on the last day, he talked about four themes including identity, ability to adapt to an organization and a new job, working overseas, and conflict with superiors based on his 40-year career.

"Youth, courage and challenge spirit are a kind of privileges that belong to newcomers. Don't lose your confidence and continue your challenge," said CEO Jung.

This year's new hire training program would certainly be a perfect launch pad for their pursuit of dreams. The only thing left is to return to their positions and do their duties. Hyundai E&C hopes that they can grow up as a driving force of our company by reflecting passion and ambition of the day.

테마토크 우수 사내강사 4인4색 인터뷰

‘개그’도 완벽 준비... 전문성·자신감은 필수입니다

우리 회사에 ‘투잡’인 사람들이 있다?! 축적된 전문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현업과 직무교육(강의)을 병행하는 우리 회사 사내강사들. <사보신문>에서는 우수 강사로 선정된 직원들을 만나 사내강사의 애환과 스피치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글=박현희 / 사진=오진태 / 장소 협찬=롤링핀 북촌점

사내강사로 Change Up!

Q 2014, 2015년 우수 강사로 선정된 네 사람만 만큼 자부심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정연수 차장(이하 ‘정’) 현대차그룹은 매년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 사내강사’들에게 포상을 합니다. 각 그룹사에서 우수 강사로 선정된 직원들은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상을 받죠. 저는 지난해 우수 강사였어요. 3명의 팀원들과 함께 ‘해외 콘크리트 기술관리’를 강의하고 있는데, 저만 받아 조금 민망했죠. 4명 중 대표로 받은 상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택기 부장(이하 ‘강’) 2015년은 진급도 하고, 우수 강사로도 선정된 잊지 못할 해였습니다. 특히 우수 강사는 제 강의를 들은 직원들의 평가로 이뤄진 것이어서 다른 누구에게 인정받은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죠.

이재원 차장(이하 ‘이’) 저는 해외공사 계약조건, 표준계약 등을 강의합니다. 강의하다 보면 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법은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을 지닌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두려움을 없앤 것 같아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김정동 부장대우(이하 ‘김’) 이재원 차장과 함께 재작년에 우수 강사로 선정됐습니다. 후배들에게 제가 가진 지식, 노하우가 잘 전달될 것 같아 상당히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는 1995년 입사해 지난해까지 크고 작은 강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올해는 강의를 쉬면서 팀원들을 사내강사로 양성하고 있는데, 팀원들도 제가 느낀 기쁜 감정을 함께 누리길 바라고 있습니다(웃음).

Q 강의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이 공군 장교로 있을 때 공군사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 법규에 대한 교양 강의를 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내강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아 2012년부터 하고 있죠. 강의 경험이 많으니 사내에서 하는 첫 강의라고 특별히 떨리진 않았어요. 대신 시행착오가 있었죠. ‘FIDIC 표준 조건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첫 시간이 끝난 후 한 수강생이 “그런데 FIDIC이 뭐예요?”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직원들의 레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이젠 조금이라도 쉽게 강의하려고 노력해요. 다양한 직군에서 제각기 다른 수준을 가진 직원들이 제 수업을 듣는다는 걸 깊이 깨달았죠.

강 2011년부터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강의할 때에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신했음에도 강의 내용 중 서너 가지를 빠뜨리거나 특정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 애를 많이 먹었어요. 준비한 내용을 모두 전달하는 것이 목표일 정도였죠. 요즘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덜 질까, 재미를 느낄까’를 고민합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 두꺼운 영문 자료를 번역하는 일도 즐겁게 하고 있죠. 새로운 재능을 찾았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 첫 강의 때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실수도 많이 했어요. 직원들에게 자신감 있게 강의하고 나왔는데, 생각해 보니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정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무척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강의 준비를 더 철저하게 했어요. 나중에는 교안을 보고 읽는 게 아니라 키워드만 보면 관련 내용을 줄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정 처음으로 강의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앞에 섰는데, 수강생들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긴장을 심



10년차 이상 베테랑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현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사진은 정연수(인프라연구개발실) 차장, 이재원(법무실) 차장, 강택기(플랜트기획실) 부장, 김정동(건축기획실) 부장대우(왼쪽부터).

하게 한 거죠. 당시엔 강의 자료만 보면서 ‘이걸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수강하는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며 수업 난이도를 조절해요. 눈빛을 보면서 질문을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강의가 좀 좋았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죠.

Q 청중을 집중시키기 위한 노하우가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김 조는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후배들에게 점수도 얻을 겸 아이스크림을 산적도 있어요. ‘아재 개그’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하고요(웃음).

강 저는 가만히 서서 강의하지 않아요. 직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많이 조는 사람에게서는 안마도 해주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해요.

이 경직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가벼운 농담이나 짤막한 동영상으로 분위기를 환기시켜요. 조는 사람이 많다면 1시간 딱 채우지 않고 45분 강의하고 15분 쉬는 식으로 진행하죠.

정 ‘강의에 집중하면 빨리 마쳐드리겠습니다!’는 강사들의 단골 멘트지만 이것만큼 효과가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웃음).

사내 최고 전문가라는 자부심

Q 어떤 사내강사가 되고 싶나요?

정 강렬한 카리스마로 청중을 몰입시키고 싶지만 경험이나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평소 국민MC 유재석을 무척 좋아하는데, 것처럼 편한 분

위기 속에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김 저는 손석희 앵커가 멋지더라고요. 사내강사라면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듣는 사람이 몰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극대화할 줄 아는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필요하고요.

강 현장 근무 당시 직원 100~200명 앞에서 툴 박스 미팅(Tool Box Meeting)을 하며 강의 아닌 강의를 해 온 경험이 제 재산이에요. 툴 모델은 없지만, 저 또한 강의 주제를 극대화시켜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길 꿈꾸죠.

이 김제동씨가 진행하는 <특투유 -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객이 던지는 화두를 갖고 순발력 있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김제동씨의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어요. 저도 분위기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Q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사우들에게 한마디.

김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신 있게 강의를 했습니다. 청중들은 전문성은 물론, 자신감 있는 강사를 신뢰하거든요. 내년에 강의를 맡게 될 팀원들에게 ‘우수 강사가 돼라!’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란 의미죠. 우리 팀원들뿐 아니라 스피치를 잘하고 싶은 직원들에게도 같은 조언을 하고 싶어요. 전문성, 자신감!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누구나 사내강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소 단어를 가려 쓰려고 노력해요. 강의하다 보면 일상에서 써 온 단어들이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콘텐츠입니다. 한 시간짜리 강의를 한다면 그 몇 배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죠. 스크립트에 의존하지 않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도 노하우로 노후하세요. 제가 수업하는 ‘법’은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면 업무나 실생활에 적용 가능해요.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수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 강의는 하면 할수록 늘는 것 같아요. 혼자 연습을 자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소한 모임이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죠. 교육이 끝나면 교재를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잘 보관하셨다가 업무를 하다 막힐 때 한 번쯤 꺼내볼 수 있도록 보관하기를 추천합니다. 저 또한 현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 성실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합니다. 트렌드를 읽기 위해 젊은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일도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중 하나죠. 올해 114개의 직무 교육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인 사내강사들이 사우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도 호기심을 갖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정연수 차장	이재원 차장	김정동 부장대우	강택기 부장
강의분야	해외 콘크리트 기술관리	해외공사 계약조건 및 표준계약의 이해	건축공사 골조 및 마감 실무	플랜트 배관·기계 시공 품질 관리, 우수/실폐 사례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테마칼럼

스피치 잘하는 리더 되기, 그노하우는?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말'로 한다. 그러나 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해와 불신이 쌓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상 대화, 프레젠테이션, 퍼블릭 스피치를 할 때 말 잘하는 노하우를 공개한다. 글=임유정 라온제나 스피치 대표

프레젠테이션 스킬 익히기, 선택 아닌 필수

프레젠테이션은 일대일 스피치가 아니라 다수의 대중을 두고 서서 말하는 퍼블릭 스피치다. 평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러 명의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일. 아래 팁만 익혀도 아마추어에서 벗어날 수 있다.

Step 1 청중을 분석하라

프레젠테이션 준비의 첫걸음은 청중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다. 프레젠테이션 초보가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청중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가 로봇처럼 읽는 것. 청중에 대한 분석만 잘 끝내도 프레젠테이션 준비의 반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Step 2 스토리텔링 능력이 승부를 가른다

술자리에서 단순히 "간배", "○○를 위하여"라고 간배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중들과의 에피소드를 잘 활용해 현장감 넘치는 간배사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청중들의 기억에는 후자가 기억에 남는다. 프레젠테이션의 고급 기술 중 하나는 '스토리텔링'이다. 사실 위주로 억양 변화 없이 국어책을 읽듯 말하는 것이 아닌, 비유와 은유를 적절히 들어 청중으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목소리 톤도 높고 낮음을 적절히 섞어 단조로움을 없애는 것이 좋다.

Step 3 Self-monitoring은 반드시 하자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 프레젠테이션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쇼다. 리허설 없이 쇼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기회는 여러 번 주어지지 않는다. 단 한 번의 무대에서 멋진 모습으로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 전 리허설을 반드시 하자. 리허설을 할 때는 ① 반드시 서서 말하고 ②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해야 하며 ③ 객관적으로 자신의 스피치를 평가하고 인정해야 한다.



제 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다. 방송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아나운서와 쇼핑호스트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방송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들이다. 모니터링을 해야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다.

Step 4 '척'을 하라

여기서 '척'이란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못나도 잘난 척'을 말한다. 일상 대화에서 '척'은 비호감이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만큼은 강한 무기가 된다. 프레젠테이션은 무대에서 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정보), 생각, 감정을 표현하는 자리다. 이때 말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을 이끄는 스피치 리더다. 리더가 자신감이 없고 너무 겸손하면 오히려 카리스마가 없어 어떤 내용을 말해도 청중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퍼블릭 스피치를 할 때는 너무 겸손해 하지 말자. '척'을 할 때 기본 전제는 철저한 자료 수집과 공부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얼굴에 두꺼운 철판 하나를 깔고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갖고 스피치해보자. 한결 프레젠테이션에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회사에서 '아재' 말고 리더가 돼라!

상사에게 보고할 때, 부하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부족한 점을 조언해야 할 때에도 매너가 필요하다. 상사가 지켜야 할 비즈니스 스피치 노하우지만 회사를 벗어나 일상생활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Case 1 상대방의 '핫버튼'은 누르지 말자

"이 대리는 S대 나왔지? 역시 대학은 SKY 정도는 나와 줘야 해. 같이 일할 맛도 나고 말이야. 그런데 김 대리는 학교 어디 나왔다고 했지?"

핫버튼은 누르면 터지는 버튼이다. 사람들은 각자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 아킬레스건이 다치면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별 말이 아니라도 상대가 크게 상처 받는 경우가 있다. 화법에 자신없는 사람 앞에서 "대학은 SKY 정도는 나와 줘야지"라든가, 워킹맘에게 "여자라면 집에서 요리나 살림을 잘해야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비매너. 다 아는 내용이라고? 의외로 화자가 핫버튼을 누른 탓에 상대가 불쾌감을 드러내면 자격지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늘 조심해야 할 일이다.

성공하는 사람의 언어습관 4개

- 1 말은 '적게'
- 2 목소리 톤은 '낮게'
- 3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단문으로 '짧게'
- 4 상대방의 기분이 ' 좋게'

Case 2 상·감·요&IF 화법으로 말하자

"너는 왜 매일 5분씩 늦어? 직장이 무슨 놀이터인 줄 알아? 다른 선배들은 다 일찍 오는데 너만 왜 늦냐고!"

부하직원을 훈계할 때 앞뒤 상황을 모두 빼고 그냥 혼내기만 하는 상사가 많다. 꾸중할 때는 상사가 인지한 '상황', 그리고 그때 그 문제로 인해 느낀 '감정', 구체적인 '요청'을 넣는 것이 좋다. 매일 5분씩 늦는 부하직원이 있다면 위와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상황) "내가 2주 동안 이 대리를 지켜봤어. 지난 2주, 근무일 10일 동안 총 4회를 늦더라. (감정) "나는 이 대리가 늦게 오면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 그리고 이 대리가 자꾸 선배들한테 혼나는 것 같아 나도 마음이 상해. 또 내가 일찍 오라고 몇 번 말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요청) "딱 10분만 일찍 와, 일찍 출근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IF 화법은 부하직원이 갖고 있는 단점을 꼭 짚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을 섞어 돌려서 말하는 화법이다. 예를 들어 항상 보고서에 오타가 많은 직원이 있다.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경력이 얼마인데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정 대리는 아이디어도 좋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데, 항상 오타가 많아. 오타 없이 정확히 해결 수 있겠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Case 3 사실 근거 화법을 구사에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라

"상사가 하라고 하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부하직원에게 일을 시키다 보면 '왜 그 일을 내가 해야 하는지' 따져 묻는 직원이 있다. 상사가 일을 시키면 그대로 하던 시절은 갔다. 직급의 권위를 이용해 무조건 따르라고 다그치기보다 '사실 근거 화법'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사실 근거 화법은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다.

"박 대리, 요즘 정 대리와 김 사원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고, 이 과정은 이번에 사장님 보고가 있어. 현재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박 대리뿐이야. 특히 이 고객사 분석은 박 대리가 지난번에도 진행했고, 또 잘했잖아? 이번에도 이 일을 맡아 주게." 특히 논리적인 부하직원에게는 사실 근거 화법이 잘 통한다. 하지만 이 화법을 사용할 때는 논리에 치중해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칭찬도 덧붙이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애플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



어려운 상사와의 대화, 핵심은 유형 파악

우리상사는 어떤 유형일까? 주니어 직급이 노련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 참고하면 좋을 팁을 소개한다.



카리스마형 상사

저돌적인 스타일의 카리스마형 상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큰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려진 지시는 일단 따르는 것이 좋다. 카리스마형 상사의 경우 다른 사람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도 있지만 일단 참자. 이들에게는 칭찬이 약일 때가 많다. 칭찬은 가급적 공적인 자리에서 상사가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도 상사에게 돌리는 것이 좋다.

만약 지시사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OK를 하고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따로 이야기하는 편이 낫다.

관계형 상사

정서적 유대가 강하고 질문과 칭찬 분석을 잘하는 이상적인 유형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함께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주고받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함께 정보를 나누고 회식도 꼭 참여

한다. 함께 야외활동을 하는 것도 관계 형성에 좋다. 조율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하므로 수시로 만나고 대화를 통해 고민을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논리형 상사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체계적인 일처리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수치와 통계를 좋아하는 만큼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말은 금하는 것이 좋다. 주장을 하기 전 이 상사가 믿을 수 있는 팩트를 제공해야 한다. PPT를 만들 때도 도식과 그래프, 도형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성형 상사

상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감정의 기복이 크므로 상사의 기분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다. 꽃, 선물 등 크지 않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speech know how

생각의좌표 오만과 편견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 모두를 분노케 했다. 그 사건의 이면에는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과 차별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은 편견을 정당화합답시고 과학을 들먹이기도 한다. 그러나 신체적인 차이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편견은 거의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잘못됐으며 심지어 조작된 것이다.

수학 못하는 여자? 다 거짓말

한때 여성이 남성보다 수학을 못한다는 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 있었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여학생의 수학 점수가 남학생을 따라잡은 지 오래다. 2015년도 수능에서 여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난이도를 가감한 전환점수) 평균은 남학생보다 수학A는

1.5점, 수학B는 0.4점이 높았다. 2016년도 수능에서 다시 뒤집히긴 했지만 적어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학을 못한다는 말은 이제 '편견'에 불과하다. 오히려 부모나 교사, 친구, 사회 등 주변의 편견이 여학생으로 하여금 수학을 멀리하도록 만들고 있다. 심리학자들의 오랜 연구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능력은 '공간지각력'이 유일하다.

더욱이 우리는 '평균과 편차'를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공간지각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건 평균일 뿐이다. A라는 여성과 B라는 남성 중 누가 더 주차를 잘 하고 길을 잘 찾았지는 실제로 비교해 봐야 알 수 있다.

요즘 공대에 여학생들의 진학이 늘고 있다. 공간적인 능력이나 선호도가 총

분히 뛰어난 학생일 가능성이 크다. 공대를 나온 여성과 남성이 같은 회사에 지원했다면 편견을 배제하고 면접에 임해야 진짜 인재를 놓치는 과오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문제는 여성의 능력이 아니라 오랫동안 남성 위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오래전 인류는 모계사회였다. 그런데 왜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었을까. 한때 인류가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던 시절, 남자 사냥꾼이 잡은 고기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학설이 유행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남성이 잡은 고기보다 여성이 채집해 온 과일이나 채소, 작은 동물이 영양에 더 중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은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집단 간의 싸움이 적지 않았고, 특히 농업이 시작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전쟁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남성 지배 구조가 굳어졌다는 학설이 유력하다.

편견과 차별의 역사는 인류의 고질병으로 불릴 정도로 길다. 과학조차 편견을 정당화하는 그럴듯한 도구로 쓰였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흑인, 유대인, 열대 지역의 원주민, 동양인, 어린이, 동성애자, 특정 지역 주민 등이 술하게 편견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 우생학(優生學)이라는 잘못된 과학마저 편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여성은 물론 흑인과 동양인에게서 나온 술한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생각하면 이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편견과 차별의 역사는 남녀만이 아니라 인류의 고질병으로 불릴 정도로 길다. 과학조차 편견을 정당화하는 그럴듯한 도구로 쓰였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다.

게으른 뇌가 편견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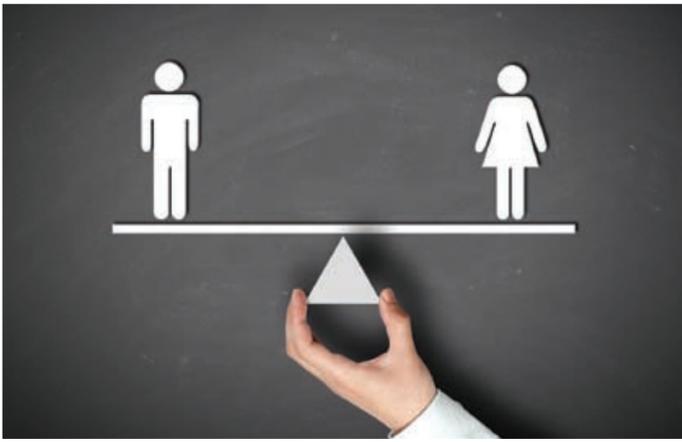
그럼에도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결속, 두 번째는 뇌의 게으름이다. 인류는 집단을 이루지 않았다면 언제 멸종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동물이다. 문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우월하거나 신성시할수록 결속감이 커지는데, 그 부작용으로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증오가 커지게 된다. 우리 뇌가 게으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편견의 큰 원인이다. 우리 뇌는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따진 뒤 가장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가장 에너지를 덜 쓰면서도 생존에 위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고정관념, 편견 등이 원시사회에서는 꽤 유용한 전략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원시인에게 알맞았던 이런 사고방식은 현대사회에서는 심각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다시 남녀 문제로 돌아와 보자. 사람은 XY 염색체로 이뤄져 있다. 여성은 XX, 남성은 XY 염색체다. 그런데 X염색체가 Y보다 월등하게 크다. 과학자들

은 Y염색체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아예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X염색체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남성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을 염색체라는 시각으로 비교해 볼 때 약한 건 분명히 남성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물론 반대로 남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역시 마찬가지다). 모쪼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회적 편견의 벽을 뛰어 넘어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

김상연
과학칼럼니스트



현이와 변이의
뉴비일기
2화 『김대리의 두 얼굴』

〈사보신문〉은 현대건설의 비전·기업문화 등을 담은 웹툰을 오는 11월까지 연재합니다.

* 뉴비(Newbie) : 못나기, 새로 온 사람, 어떤 직업에 대한 무경험자를 지칭하는 신조어

여기로군, 내가 활약할 첫 현장이!

나의 엄청난 능력과 재능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하하하!!!!

반갑습니다 김대리

김의 선임팬도 김대리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모르는건 언제든지 물어봐요.

실수했다간 국물도 없겠어!

모르는건 제때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라고 말했지만 그럴 일은 없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부탁 드립니다!

너무나 유능해서

파악

모르는게 생길리 만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대리는

최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를 치고 만다.

나 대신 김대리님이...!!

건사원, 퇴근하고 나 좀 봅시다.

네...네!!!!

큰일났다, 첫날부터 캐지게 생겼어!!

저..

다 압니다.

열심히 하려다 그런 거잖아요.

인자 - 온화 -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거죠.

나도처음엔 그랬거든.

건사원 보면 딱 내 그시절이 생각나요.

김대리님이 갑자기 부처가 되었어!

에..?!

아하반야 바라만다능!

혼자서 잘해 보려다가

와장창

만날 사고치고 실수하고..

누구야!!!

누가 이랬어!!!

앗..저!

그런데 그때마다

내 선임팬도 이셨던 분이 잘못을 감싸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바로 잡아 주셨어요.

그때 감동받아서 선임이되면 나도 그러자고 생각했죠.

끼이잉~

김대리님...!!

저도 이 다음에 꼭 김대리님 같은 선임이 되고 싶습니다!!!!

하하하 형이라고 불러~

존경합니다. 형!!!!

건배하면서 파이팅 한번 하자!

그 뒤로 김대리는 빠르게 업무에 적응했고 실수도 줄었지만

현대건설 김대리! 사랑해요 김대리!

와아

아아

우울빛깔 김대리!

김대리의 열성팬도 되어버렸다고!

글/그림-웹툰작가 손하기

문화칼럼

뜨겁게! 시원하게! 아찔하게! 여름영화 총정리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 673만 관객(6월 16일자 기준)을 돌파한 데 이어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도 흥행 대열에 합류했다. 상반기 관객 감소로 몸살을 앓던 극장가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연일 활기를 더하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올여름 기대작들은 늘어난 관객과 함께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여름은 대규모 물량공세를 앞세운 블록버스터 시즌이라는 점에서도 관객의 관심이 더 집중된다. 한국영화와 할리우드 영화들을 중심으로 올여름 화제작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글=이화정 <씨네21> 기자

▶ 충무로를 접수한 여름 블록버스터



<아가씨> <곡성>과 함께 제69회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되어 호평을 얻은 <부산행> (7월 20일 개봉)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부산행 KTX에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의 면모를 살릴 수 있는 작품. 공유, 마동석, 정유미 등이 출연하며, 특히 <돼지의 왕> <사이비> 등 사회고발성 애니메이션을 연출해 온 연상호 감독의 첫 번째 실사영화라는 점도 주목을 끈다. <부산행>의 프리퀄 형식으로 애니메이션 <서울역>도 뒤따라 개봉을 준비 중이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면 좋겠다. 재난 블록버스터로 기대되는 또 한편

의 작품은 <터널> (8월 개봉)이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무너진 터널 안에 고립된 남자와 그의 구조를 둘러싸고 변해가는 터널 밖 이야기를 다룬다. 터널에 고립된 평범한 가정으로 하정우가, 그를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구조본부 대장으로 오달수가 출연한다. <끝까지 간다>로 평단의 호평과 흥행을 얻은 김성훈 감독의 차기작이다.

리엄 니슨이 백야더 장군으로 캐스팅 되어 화제를 모은 전쟁액션 블록버스터 <인천상륙작전> (7월 개봉)도 기대작이다. 6·25 전쟁의 전세 역전을 가져온 인천상륙작전의 급박한 상황을 스크린에 재연한다. 작전의 성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병도, 계급도 없는 '숨은 영웅'들에게 집중한다. 이정재가 첩보작전을 이끄는 장학수를, 이범수가 엘리트 출신의 북한군 사령관 림계진을 연기한다. 총제작비 160억원을 투입한 대작으로, 1950년대의 인천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프로덕션 디자인도 기대를 모은다. <내 머리 속의 지우개> <포화 속으로>를 연

출한 이재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이정재·이범수가 출연한다.

주목할 만한 사극도 많다. 대동강물을 팔아치운 봉이 김선달을 유쾌하게 재해석한 <봉이 김선달> (7월 6일 개봉)이 여름 블록버스터의 포문을 연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 속 김선달보다 훨씬 젊고 코믹하고 뻔뻔하며 천재적인 김선달 역은 유승호가 맡는다. 임금까지 속이는 봉이 김선달과 사기꾼 패거리 (고창석·라미란·시우민)가 펼치는 활약상으로, <그림자 살인>의 박대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를 소재로 한 <덕혜옹주> (8월 초 개봉)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8월의 크리스마스> <불날은 간다>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의 신작으로, 손예진이 덕혜옹주를 맡아 일본에 끌려가 평생 조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비운의 황녀 덕혜옹주의 내면을 세심하게 그려낸다. 박해일·윤제문·라미란·정상훈·안내상·백윤식 등이 덕혜옹주를 둘러싼 사람들로 출연한다.



▶ 이보다 더 화려할 수 없는 애니메이션 각축전

여름방학을 맞아 애니메이션 역시 블록버스터급 위용을 자랑한다. <토이스토리> <업> 등을 제작한 애니메이션 명가 픽사 스튜디오 30주년 기념작인 <도리를 찾아서> (7월 7일 개봉)는 <니모를 찾아서>의 스피드 오프 작품. 모태 건망증이 자 픽사의 인기 캐릭터 도리가 전면에 나선다. 도리가 가족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니모와 말린과 함께 자신의 고향이라 추정되는 캘리포니아의 바다 생물 연구소로 가족을 찾아 모험을 떠나면서 겪는 스펙터클 어드벤처물. 픽사 특유의 탄탄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라인, 신비로운 바닷속을 3D 애니메이션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여름을 녹여줄 빙하기 소식도 어김없이 들려온다. <아

이스 에이지>의 다섯 번째 시리즈 <아이스 에이지: 지구 대충돌> (7월 개봉). 이번에는 무대를 우주로 확장해 시리즈 사상 최강의 스케일을 예고한다.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는 지구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빙하기 캐릭터들의 모험을 그린 스펙터클 어드벤처. 이 모든 거대한 서사는 다람쥐 스크랫의 도토리에 대한 집착에서 형성되었다. 전편부터 활약한 시드, 디에고, 매니의 활약을 여전히 3D로 만날 수 있

다. 어른·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도 여름 극장가에서 선보인다. <카이: 거울 호수의 전설> (8월 개봉)는 <마리 이야기> <천년여우 여우비>를 만든 이성강 감독의 신작.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을 모티브로 동양적인 정서를 담아낸 작품. 눈의 여왕의 마법에 걸려 얼어붙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선 용감한 소년 카이의 모험을 그린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 할리우드는 지금 거대한 속편 전쟁 중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계절은 역시 여름이다. 먼저 대망의 본 시리즈가 돌아온다. <본 얼티메이텀>의 마지막, 사라졌던 본이 무려 9년 만에 등장한다. <제이슨 본> (7월 28일 개봉)은 폴 그린그래스와 매트 데이먼이 다시 만나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주요 제작진 역시 앞선 시리즈를 함께했던 이들. 제러미 러너가 바통을 이어받았던 <본 레거시> (2012)를 아쉬워했던 관객이라면 보다 '정통'에 가까운 본 시리즈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 테러에 맞서 싸우는 본의 활약으로, 이번에는 그 능력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제임스 본드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파이인 본의 컴백이다.



SF 재난 블록버스터 <인디펜던스 데이: 리써전스> (6월 22일 개봉)는 <인디펜던스 데이>의 무려 20년 만의 속편이다. 1편으로부터 20년이 흐른 시간, 외계인과의 사투로 인류의 절반을 잃고 재건과 대비에 힘썼던 이들이 더 강력해진 외계의 침공에 맞서는 과정을 그린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외계 침공에 대비해 외계의 기술과 지구의 기술을 합친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한 인류와, 더 압도적인 규모의 공격력을 갖춘 외계인의 한판 승부. 전편의 폴란드 에메리히 감독이 '후속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캐릭터와 세계를 보여줄 작품'이라 언급한 작품. 지

난 20년의 명성과 흥행을 뛰어넘을지 기대를 모은다.

마술 범죄라는 독특한 소재로 케이퍼 무비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리며 흥행을 한 <나우 유 씨 미: 마술사기단>도 속편으로 돌아온다. <나우 유 씨 미 2> (7월 14일 개봉)는 전편의 화려한 쇼, 속도감 넘치는 전개까지 모두 장착한 올여름 기대작이다. 3년 전 통쾌하고 짜릿한 완전범죄 매직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기단이 이번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함정에 빠지게 된다. 세상의 모든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카드를 훔쳐야 하는 게 이들의 과제. 자존심을 건 마술사기단의 활약이 펼쳐질 예정. 제시 아이젠버그, 마크 라팔로, 우디 해럴슨, 데이브 프랭코, 대니얼 래드클리프, 리지 캐플란, 주걸륜 등 배우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DC 코믹스의 신작 <수어사이드 스쿼드> (8월 5일 개봉)를 보지 않고 올여름을 건지기 힘들 것이다. 먼저 개봉한 DC의 <배트맨 vs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이 평단의 혹평에 시달린 데다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 뒤처진 상황. 조커(자레드 레토), 할리 퀸(마고 로비), 데드 샷(윌 스미스), 캡틴 부메랑(제이 코트니) 등 DC코믹스를 대표하는 악당들이 한꺼번에 모인 만큼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DC의 자존심을 회복해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만화 속에서 튀어나왔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싱크로율이 뛰어난 할리퀸 때문에 팬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진 상태. 영화는 히어로들이 할 수 없는 특수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슈퍼 악당들이 펼치는 액션 블록버스터다.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죄수들을 특공대로 구성했고, 특별사면을 대가로 결성된 일종의 자살 특공대다.

▶ 놓치면 아깝다! 작은 영화, 큰 감흥



다큐멘터리 <소녀와 여자> (6월 16일 개봉)는 아프리카 소녀들에게 닥친 인권 문제를 다룬다. 여성 성기 절제를 해야 하는 전통을 가진 그곳에서 17세 소녀 엘리자는 도망친다. 여성, 순결, 전통의 이름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의 관찰을 통해 영화는 되풀이되는 악습의 실체를 파악해 나간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안녕?! 오케스트라>를 프로듀싱한 김효정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먼 아프리카의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작품이다.

많은 아픔을 계기로 삶을 재점검하게 된 한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와일드>를 통해 올림을 선사한 장 마크 발레 감독의 신작. 제이크 질렌할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데이비스로, 나오미 앳츠가 그의 상처에 공감하는 고객센터 직원으로 등장해 깊이 있는 연기를 선사한다.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섯스> <비포 미드나잇> 시리즈를 연출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만든 19금 코미디 <에브리바디 원츠 씬!!> (7월 14일 개봉)도 여름에 제격인 영화다. 1980년대 미국 텍사스대 야구 선수들의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감독 자신의 경험담을 투영한 웃지못할 해프닝들이 가득 펼쳐진다.

1800년 전 지은 원형극장서 지금도 공연...로마는 살아있다 터키 안탈리아의 그리스·로마시대 유적 탐방

1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통과했다는 아치 형태의 문. 2세기 건축물이다. 2 터키 안탈리아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고대 도시 시데의 아폴로 신전. 이 신전에서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를 유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3 2세기에 지어진 아스펜도스의 고대 원형극장. 오늘날에도 본래 기능 그대로 오페라와 발레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도 사용되는 고대 원형극장

안탈리아 여행은 고대 유적 탐방의 연속이었다. 이 지역의 고대 도시는 이름과 크기만 다를 뿐 다 비슷비슷한 모습이었다. 아고라(광장)·원형극장·아크로폴리스(언덕)·신전·목욕탕·교회 등 그리스·로마 시대의 역사와 문화에 문외한인 동양인의 눈에는 솔직히 그 도시가 그 도시 같았다.

그런데 이 심드렁한 여행자의 눈을 확 뜨게 한 유적이 있었다. 아스펜도스의 원형극장이었다. 서기 2세기에 지었다는 이 극장은 현재 터키에 있는 수많은 로마시대 원형극장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된 유적이라고 했다. 극장 안으로 들어갔더니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1만5000석 규모의 대형 극장이 정말 원형 그대로 유지돼 있었다. 이때 가이드가 충격적인 설명을 해줬다. 1800년 이상 묵은 이 극장이 아직도 활용된다는 것.

“현재도 이 극장에서 오페라와 콘서트, 발레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1800년이 넘는 유적을 관광객이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유적이 원래 기능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은 믿기 힘들었다.

세기의 사랑

지중해를 배경으로 한 고대 도시 시데(Side)는 안탈리아의 여느 고대 도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짙푸른 지중해가 주는 청량함이 도시에 다른 색깔을 입혔다.

시데는 기원전 7세기에 건설된 도시다. 한때는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이 열렸을 만큼 번창했지만 기원전 3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가 점령하면서 도시 대부분이 파괴됐다. 그런데도 시데에 관광객이 몰리는 이유는 안탈리아 지방에 있는 고대 도시 중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시데는 3면이 지중해로 둘러싸인 해안 도시다.

시데의 도시를 가로질러 지중해 연안에 다다르자 기둥 5개와 벽면 일부만 남은 폐허가 보였다. ‘아폴로신전’이었다. 지금은 폐허의 모습이지만 이 신전에서 세기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의 러브 스토리 말이다. 석양이 지는 이 신전 앞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유혹했다고 한다.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고 클레오파트라에 반한 안토니우스는 결국 로마를 배신하고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겼다. 널브러진 신전의 잔해에 걸터앉아 아폴로신전을, 아니 신전 뒤로 펼쳐진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을 바라봤다. 가이드의 설명처럼 안탈리아에서 만난 유적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평범한 여자가 유혹했어도 안토니우스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그런 절경이었다. 물론 두 사람은 자살로 삶을 마감했지만 말이다.

